

배우자 선택과 만족에 대한 연구

김 동 수 박 미 형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미혼자의 배우자 선택과 기혼자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 관련 요인을 미혼자, 초기기혼자, 중년기혼자, 노년기혼자에 이르는 세대에 걸쳐 살펴보았다. 서울과 충청권에 거주하는 163명의 조사대상자들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48명의 미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선택과 기피요인을 기술하였고, 나머지 112명의 기혼자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과 불만요인을 기술하였다. 이들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4개의 상위범주(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적 측면)와 1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선형로그분석을 통해 범주와 세대 및 성별에 대한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선택/만족요인에서는 범주와 세대, 범주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이 유의미 했고, 기피/불만요인에서는 범주와 세대, 범주와 성별,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그리고 각 상위범주에 따른 세대와 성별 간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4개의 상위범주에서 모두 세대차가 나타났고, 가족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발달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배우자 선택, 배우자 만족, 내용분석, 성인발달, 세대차, 성차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사람들은 이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여러 동기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동기다. 사실,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며, 왜 서로에게 몰입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역사적 및 문화적 장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주제였다. 이성 간의 관계 중에서 배우자 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발달 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전생애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성 간의 바람과 만족의 양상을 인간 발달적 접근에서 조망해 보는 것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의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배우자 선택과 만족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 선택 과정 및 조건, 그리고 결혼만족도라는 개념으로 주로 가정학과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서구에서 193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가족행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배우자 선택과 관련해서, 배우자 선택과정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배우자 선택과정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김혜선, 성미애, 1993; 김혜선, 한희선, 1995). 또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여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밝히기도 했다(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홍달아기, 2003). 특히, 정현숙 등(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2003)은 배우자 선택조건을 동질적 요인과 이질적 요인으로 나누었고, 김경신 등(1997)은 외적, 내적, 동질적, 상호적 조건 등 4가지 상위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외적 조건은 수입, 재산, 학력, 외모, 직업, 건강상태, 장래성, 가정환경 등이었고, 내적 조건은 전반적 매력, 애정의 표현력,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 원만성, 진취성 등이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조건 of 동질적 조건으로는 연령, 출신지역, 종교, 취미, 인생목표 및 가치관, 성격 등이었고, 상호적 조건으로 대화가 잘 통함, 상호평등적 존중, 상호독립성 유지, 단점보완, 역할 교환 등이었다.

배우자 선택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서병숙, 정해은, 1994). 가령, 한 연구에서는 남녀학생 모두 성격, 건강, 학력, 외모, 능력 등을 순서별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강은숙, 1981), 다른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성격, 건강, 외모를, 여학생은 성격, 장래성, 건강을 순서별로 중요시했다(강호철, 1984). 외국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매력 등 비경제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여성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야망, 성격, 지적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Feingold, 1992; Wooldredge & Scheon, 1989).

한편, 배우자 만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만족도라는 개념 하에 이루어졌다. 결혼만족도란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 Hawkins James(1968)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했다(이인수, 유영주, 1986에서 재인용). 또 Roach, Frazier와 Bowden(1981)은 결혼만족도를 ‘주어진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선호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만족도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면서, 결혼행복도, 결혼적응도, 결혼성공

도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하여 연구하였다 (Orden & Bradburn, 1968; Sabatelli, & Shehan, 1993).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난다(최규란, 1984; 이여형 1986; Imamoglu, & Yesim, 1997). 예를 들면, 여성에 비해 남성들은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이혼의도도 더 적을 뿐 아니라, 부부간에 친밀감을 더 느끼며, 성적으로도 더 만족하고, 배우자와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도 잘 통한다고 지각하며, 배우자의 원가족과 관련된 갈등을 덜 경험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성, 한덕웅, 2003). 이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더 불만족하는 것은 서구문화에 비해 한국문화에서 더 강했다(정현숙, 1996). 이러한 차이는 한국사회가 근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특징에 기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근대적인 가치를 내면화한 여성들이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현실에 따른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결혼생활을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와는 달리, 배우자 선택이나 만족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가령, 김혜선과 김명자(1992)는 교제과정과 배우자선택과정 간의 합의 정도가 결혼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또한, 기혼남녀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도(이선정, 신효식, 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에 따라 배우자의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보다 최근에 김민녀와 채규만(2006)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영역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가족 상황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배우자의 선택조건, 결혼만족도, 그리고 배우자 만족의 발달적 변화 및 선택과 만족의 관련성 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몇몇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그 동안의 배우자 관련 연구들이 배우자 선택과 배우자 만족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했다. 그래서 기존의 배우자 선택조건과 결혼만족의 개념으로는 이러한 결혼 전후를 비교할 종합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기가 어렵다. 배우자 관련 문제를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본다면, 배우자에 대한 바람과 이에 대한 행동적인 측면인 선택, 그리고 선택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만족이나 불만족 등의 사건들은 각각 분리된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시간적 흐름에 당면한 발달적 문제로 파악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배우자 선택과 만족의 문제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 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과정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은 양적 척도를 통해서 시기별 만족도의 양적 차이를 밝히거나, 배우자 선택과 결혼만족이라는 두 변인 간의 상관관을 비교함으로써, 배우자 선택과 만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실제 결혼을 이제 막 시작한 성인 초기의 연령대와 자녀가 독립한 노년기의 연령대의 배우자 만족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외로 크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라는 사건을 전생애 발달 과정에서 핵심사건으로 파악하고, 큰 틀에서 Erikson(1968)과 Levinson(Levinson, 1996;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의 발달이론에 기초하여 배우자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Erikson은 성인기를 성인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고, 유사하게 Levinson도 성인초기, 성인중기, 성인후기로

구분했다. 미혼기나 결혼초기는 성인전기 혹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특히 배우자를 통한 친밀감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관계가 특별한 남자 혹은 여자와의 관계인데, 낭만적이고 성적인 대상이면서도 자신의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Levinson, 1996; Levinson et al., 197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배우자 선택은 상대방과의 관계 및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혹은 조건들을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나 조건은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외적 요소들도 크게 반영할 것이다. 또한, 결혼 초기의 경우, 경제적인 안정과 직업적인 성취에 따른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Levinson, 1996; Levinson et al., 1978), 배우자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들도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rikson(1968)에 따르면, 중년기는 생산성을 발달과업으로 하는 시기이다. 생산성은 다음 세대를 돌보고 길음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중년기 성격발달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성은 자녀의 양육이나 직업상의 기술과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획득된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이 시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이거나 낭만적인 환상은 사라지고 대신 우정과 같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로서의 친밀감이 중요하다(Levinson, 1996; Levinson et al., 1978). 또한, 이 시기에는 부부 이외에 자녀의 양육의 문제나 부모세대의 부양 및 그들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직업에서 외부적인 보상이나 평가보다는 내적인 흥미나 자기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 시기인 노년기는 삶의 통합을 과업

으로 하는 시기로(Erikson, 1968),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가치 있다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삶의 통합이 획득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하고, 가치를 재구성하며, 과거의 생애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년기의 배우자 관계는 배우자와의 현재의 당면한 문제보다도 과거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측면을 더 중요시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evinson에 따르면(Levinson, 1996; Levinson et al., 1978), 이 시기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함으로써, 사회적 도전이나 성취를 추구하는 경향은 미약하다.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

이처럼, 배우자 연구를 인간 발달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때 이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우선, 결혼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성인 발달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발달의 양상과 배우자 관련 문제의 변화 양상을 동시에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선택, 만족, 불만족이라는 다각도의 측면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배우자 선택에 직면해 있는 미혼자에게 좀 더 나은 선택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급증하는 이혼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홍달아기, 2003). 이 때 만족이 단순히 불만의 형식적 반대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족이 부부간 걱정이나 고민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만족 요인과 불만요인(정현숙, 2001) 및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Fincham & Beach, 1997)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과 만족의 문제에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방법은 배우자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서구의 개념과 척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한계점을 보인다. 예를 들면, 결혼만족에 대한 국내연구자들이 서구의 개념과 척도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정현숙, 1997; Sabatelli, & Shehan, 1993).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구에서 많은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며(Shek, 1995; Wadby, 1998), 따라서 외국의 척도와 개념으로는 한국의 문화적인 개별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사회의 여성에 비해 한국 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문화적인 원인들(정현숙, 1996),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보상이 결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정현숙, 2001),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서구에서는 결혼이 개인의 사회적 영역의 확대와 확대 가족의 관계로 발전되기 보다는 부부들만의 관계와 개인적, 쾌락적 보상에만 한정된다(정현숙, 2001). 따라서 현재 한국 상황에서 세대별 및 발달 양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무엇에 대해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 미혼자의 배우자 선택/기피와 기혼자의 배우자 만족/불만에 관한 요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세대와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세대차의 경우 Erikson의 성인발달 모형과 Levinson의 발달이론에 기초하여 배우자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인간 발달의 양상은 세대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이나 만족에 관한 요인들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달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생활주기(life cycle)를 참고해서 세대를 구분했다. 가족생활주기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며 비슷한 발달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족을 특정 범주로 구분한 것으로(장윤옥, 1993),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제 문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홍향숙, 1989).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 가장 큰 자녀의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Mattessich & Hill, 1987).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전의 미혼시기와 결혼 이후의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하였다.

미혼기는 결혼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사가 있는 25세에서 30세 전후의 시기를 말한다. 결혼초기는 30세 전후에서 40세 이전의 시기로 지칭한다. 이 시기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없는 시기에서부터 첫아이의 출생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부부 간에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자녀의 출산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와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출현은 부부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되며 이 시기의 핵심적 문제가 된다. 중년기는 40세에서 60세 이전의 시기이며, 결혼생활의 중반에 들어서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자녀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쏟는 시기이며, 첫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여 독립하는 시기 이전이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약 60세 이후로 첫 자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이고, 본 연구에서는 배후자와 사별하지 않은 시기로 정하였다. 이 시기는 결혼생활의 후기에 이르는 단계로,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미혼자와 기혼자 총 163을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자료수집

연구자들은 충청권 소재 대학교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 수업을 수강하는 총 150명의 학생들에게 특성 세대에 속하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으며, 연구자 자신들도 동일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2008년 3월에서 2009년 1월에 걸쳐 188

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 15개를 제외하고 총 163개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대해 응답하게 한 다음, 배우자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즉, 미혼의 대상자들에게는 “특정인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을 각각 기술하게 했으며, 기혼의 대상자들에게는 “당신이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점과 불만족하는 점”을 기술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모든 응답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다음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으로 수집한 자료를 질적 및 양적 분석을 동시에 실시했다. 즉, 내용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구체적인 질적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분류된 범주에서 빈도를 산출하여 범주형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을 했다. 내용분석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은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외현적이고 현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Mar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문장이나 단락에 내포된 주제를 분석단위로 하는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텍스트에 포함된 태도, 가치, 신념 등을 연구함으로써 대개 현실적이고 분석내용에 가깝다는 장점을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

변인	범주	미혼	결혼초기	결혼중기	노년기	전체
성별	남	21(32.8)	15(23.4)	14(21.8)	14(21.8)	64(39.3)
	여	28(57.2)	23(34.8)	32(74.0)	16(53.3)	99(60.7)
	소계	49(100)	38(100)	46(100)	30(100)	163(100)
평균연령	남	27.6	32.9	53.9	70.2	-
	여	26.1	31.2	50.3	71.4	-
평균결혼연수	남	-	3.7	23.5	39.0	-
	여	-	4.1	25.1	45.0	-
직업	유	29(59.1)	31(81.5)	31(65.1)	4(13.3)	95(58.2)
	무	7(14.2)	7(18.5)	15(34.9)	26(86.7)	55(33.7)
	무응답	13(26.7)	-	-	-	13(7.9)
자녀 수	0명	-	1(2.6)	1(2.7)	-	2(1.2)
	1명	-	9(23.7)	15(41.6)	1(3.3)	25(15.3)
	2명	-	24(63.1)	18(50.0)	3(10.0)	45(27.6)
	3명이상	-	4(10.5)	2(5.5)	26(86.7)	32(19.6)
	무응답	-	-	10(21.8)	-	10(6.1)
학력	초졸이하	-	-	3(6.5)	19(63.3)	22(13.4)
	중졸	-	-	1(2.1)	5(16.6)	6(0.6)
	고졸	1(2.1)	1(2.6)	23(50.0)	5(16.6)	30(23.9)
	대졸이상	48(97.9)	37(97.4)	19(41.3)	1(3.3)	105(64.4)
경제수준	상	-	-	12(26.0)	-	12(7.3)
	중상	7(14.2)	2(5.4)	20(43.4)	4(13.3)	33(20.2)
	중	34(69.3)	24(62.1)	13(28.2)	20(66.7)	91(55.8)
	중하	6(12.2)	10(27.0)	1(2.1)	5(16.7)	22(13.4)
	하	2(4.0)	2(5.4)	10(21.7)	1(3.3)	15(9.2)

갖지만, 단어 내용분석에 비하여 한층 어려우며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심적인 주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Weber,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평가자를 이용하여 그들 간 합의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평가자간 신뢰도는 .83이었다.

구체적인 내용분석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1) 응답내용을 문항번호에 따라 모두 기록한다. 2) 3명의 연구자는 기록된 응답자의 응답을 같은 주제에 따라 묶는 1차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각각 코딩한다. 3) 3명의 연구자가 모여서 분석결과를 대조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통해 분석결과를 통일한다. 그리고 이때에 각 항목에 대한 상호배타성을 확인하고 모든 응답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항목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4) 통일된 1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3명의 연구자는 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범주로 묶는 내용분석을 한 이후에 만나서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하고, 토론을 통해 2차 분석을 마무리한다. 5) 1, 2차 과정을 통해 완성된 내용분석을 한 사람이 정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과 같이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내용분석을 마친다(Denzin & Lincoln, 1994). 응답내용에서 만족 혹은 불만족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응답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의 내재된 내용(latent content)을 추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기피 그리고 만족/불만족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4가지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한 범주들에 대하여 세대별과 성별에 따라 반응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세대와 성별 그리고 범주를 변인으로 하여 이들 변인들 간에 서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형로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범주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대별 및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미혼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선택/기피 그리고 만족/불만에 대한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4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개의 기타범주로 구성되었다. 4개의 상위범주들과 18개의 하위범주들은 모든 응답내용들이 이들의 범주에 포괄되며 각 분석범주는 상호배타적으로 설정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4개의 상위범주들은 배우자의 공간적, 관계적 범위에 따라 중심원을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는데, 배우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시작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가족적 측면,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사회적 측면의 상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공간적, 관계적인 범위를 통해 분류된 상위범주는 각 하위 범주의 상호배타성과 내용의 전체적 포괄성의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분류되었다.

그런데 응답내용의 의미와 주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응답에 있어서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단일한 항목으로 분류가 사실상 힘든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배우자의 성격에 관련한 응답을 한 경우에도 그 성격의 의미는 ‘가치관 및 사고방식’ ‘개인적 유능성’ ‘정서적 안정 및 신뢰’, ‘이해 및 존중’ 등의 항목등과 그 의미가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다. 심지어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외모 및 신체적 매력’의 항목과도 완전하게 분리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듬직함”이라는 의미는 성격과 외모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력의 항목을 예를 들자면, 경제력에는 사회적 측면의 ‘사회

적 지위나 직업'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적 측면인 '개인의 유능성 및 장래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한 가지 수준의 항목으로 분류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언어의 다의적이고 중의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응답자가 말한 핵심적인 의미를 항목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만일 다의적인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여러 항목의 의미를 동시에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항목의 상호배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범주에 대한 정의를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하고 여러 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서 분석범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질문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동일한 항목과 범주로 분류한 이유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반응을 공통된 항목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과제인 배우자 관련 미혼자와 기혼자의 세대 간 연계과정을 각 범주별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과 현재 배우자에 대한 만족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 대한 기피와 불만 또한 부정적 측면에서 공통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혼자와 기혼자 응답이 단지 미래의 기대/기피나 현재의 만족/불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구성항목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성된 항목 내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은 성별 혹은 미혼자와 기혼자, 각 세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모 및 신체적 매력'의 항목에서 남성이 주로 의미하는 외모란 잘 생김이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가깝다면, 여성은 분위기와 매력의 측면에서의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안정 및 신뢰'의 항목에서 미혼자와 초기 기혼자는 상대 배우자로 부터의 배려와 따뜻함, 열정과 사랑에 관련된 응답이 많았고, 노년기에는 '정'이라든지 '그냥 편하다'와 같은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서 동일한 항목 내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장에 내포된 주제들 중에서 각 세대별, 성별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수준에서 분석수준을 맞추었다.

내용분석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각 세대와 성별에 대하여 나타난 배우자 선택/기피와 만족/불만의 응답 빈도와 응답비율을 표 2와 3에 제시하였다. 또한 4개의 상위범주와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는 다음과 같다(부록 1 참조).

개인적 측면

성격, 신체적 건강,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가치관 및 사고방식, 유능성 및 장래성, 생활습관의 하위항목들을 개인적 측면의 상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배우자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즉 응답자가 평가한 배우자의 내적 특성을 지시하고 있는 하위항목들을 개인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하위항목으로, ① 성격의 항목은 응답자가 배우자에게 느끼는 배우자 개인의 내적 특성이다. 이 개념은 추상성이 높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한 실제 응답내

표 2. 선택/만족 요인에서 세대 및 성별에 따른 범주별 응답비율

행위	미혼기			결혼초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1. 개인적 측면												
성격	57(30.6)	57(29.9)	22(31.4)	45(35.4)	59(30.9)	34(35.4)	23(24.8)	21(28.6)	23(28.6)	23(24.8)	21(28.6)	22(28.6)
신체적 건강	19(10.7)	27(9.3)	10(14.3)	17(13.4)	22(11.5)	13(13.5)	8(12.1)	8(12.1)	8(12.1)	8(12.1)	8(12.1)	9(11.7)
외모 및 신체적 매력	6(3.2)	10(5.4)	2(2.9)	8(6.3)	15(9.9)	8(8.3)	7(10.6)	7(10.6)	7(10.6)	7(10.6)	7(10.6)	9(11.7)
가치관 및 사고방식	15(8.1)	17(5.9)	1(1.4)	4(3.1)	5(2.6)	3(3.1)	0(0.0)	0(0.0)	0(0.0)	0(0.0)	0(0.0)	1(1.3)
유능성 및 강연성	5(2.7)	10(5.4)	4(5.7)	4(3.1)	2(1.0)	2(2.1)	1(1.5)	1(1.5)	1(1.5)	1(1.5)	1(1.5)	0(0.0)
생활습관	10(5.4)	16(5.9)	3(4.3)	8(6.3)	7(3.7)	5(5.2)	2(3.0)	2(3.0)	2(3.0)	2(3.0)	2(3.0)	0(0.0)
	2(1.1)	7(2.4)	2(2.9)	4(3.1)	4(2.1)	3(3.1)	5(7.6)	4(2.1)	4(2.1)	5(7.6)	4(2.1)	3(3.9)
2. 관계적 측면												
장사적 안정 및 신뢰	59(31.7)	86(29.6)	20(28.6)	32(25.2)	52(27.2)	30(31.3)	25(27.2)	25(27.2)	25(27.2)	25(27.2)	25(27.2)	25(32.5)
공통의 생활환경	18(9.7)	28(9.6)	7(10.0)	12(9.4)	21(11.0)	10(10.4)	9(13.6)	9(13.6)	9(13.6)	9(13.6)	9(13.6)	9(11.7)
이해 및 존중	14(7.5)	23(7.9)	7(10.0)	11(8.7)	20(10.5)	12(12.5)	7(10.6)	7(10.6)	7(10.6)	7(10.6)	7(10.6)	9(11.7)
의사소통	16(8.6)	23(7.9)	4(5.7)	7(5.5)	7(3.7)	4(4.2)	7(10.6)	7(10.6)	7(10.6)	7(10.6)	7(10.6)	7(9.1)
	1(0.5)	12(4.1)	2(2.9)	2(1.6)	4(2.1)	4(4.2)	2(3.0)	2(3.0)	2(3.0)	2(3.0)	2(3.0)	0(0.0)
3. 가족적 측면												
가족에 헌신 및 집안일	19(10.2)	30(10.3)	10(14.3)	14(11.0)	23(12.6)	11(11.5)	8(12.1)	8(12.1)	8(12.1)	8(12.1)	8(12.1)	8(10.4)
양육태도 및 자녀관계	7(3.8)	9(3.1)	2(2.9)	4(3.1)	8(4.2)	5(5.2)	2(3.0)	2(3.0)	2(3.0)	2(3.0)	2(3.0)	2(6.5)
친인척 관계	7(3.8)	10(5.4)	5(7.1)	6(4.7)	10(5.2)	4(4.2)	6(9.1)	6(9.1)	6(9.1)	6(9.1)	6(9.1)	5(6.5)
	5(2.7)	11(3.8)	3(4.3)	4(3.1)	5(2.6)	2(2.1)	0(0.0)	0(0.0)	0(0.0)	0(0.0)	0(0.0)	1(1.3)
4. 사회적 측면												
경제력	44(24.7)	79(27.1)	14(21.4)	33(26.0)	44(23.0)	18(18.8)	5(7.6)	5(7.6)	5(7.6)	5(7.6)	5(7.6)	12(15.6)
취업 및 사회적 지위	14(7.5)	27(9.3)	5(7.1)	8(6.3)	9(4.7)	6(6.3)	3(4.5)	3(4.5)	3(4.5)	3(4.5)	3(4.5)	5(6.5)
집안배경	13(7.0)	23(7.9)	3(4.3)	12(9.4)	14(7.3)	4(4.2)	0(0.0)	0(0.0)	0(0.0)	0(0.0)	0(0.0)	3(3.9)
학력	10(5.4)	14(4.8)	3(4.3)	6(4.7)	8(4.2)	3(3.1)	1(1.5)	1(1.5)	1(1.5)	1(1.5)	1(1.5)	1(1.3)
	7(3.8)	9(3.1)	3(4.3)	4(3.1)	8(4.2)	3(3.1)	0(0.0)	0(0.0)	0(0.0)	0(0.0)	0(0.0)	1(1.3)
종교	2(1.1)	6(2.1)	1(1.4)	3(2.4)	5(2.6)	2(2.1)	1(1.5)	1(1.5)	1(1.5)	1(1.5)	1(1.5)	2(6.5)
5. 기타												
	5(2.7)	9(3.1)	3(4.3)	3(2.4)	13(6.8)	3(3.1)	5(7.6)	5(7.6)	5(7.6)	5(7.6)	5(7.6)	10(13.0)
합계	184(100.0)	291(100.0)	70(100.0)	127(100.0)	191(100.0)	96(100.0)	66(100.0)	66(100.0)	66(100.0)	66(100.0)	66(100.0)	77(100.0)

표 3. 기묘/놀만 요인에서 세대 및 성별에 따른 범주별 응답비율

항목	미혼기		결혼초기		중년기		노년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개인적 측면								
성격	57(47.9)	87(44.4)	22(28.9)	43(27.4)	44(32.4)	53(26.2)	23(41.8)	22(34.4)
신체적 건강	17(14.3)	23(11.7)	8(10.5)	17(10.4)	10(9.5)	24(10.7)	9(16.4)	10(15.6)
외모 및 신체적 매력	5(4.2)	7(3.6)	2(2.6)	5(3.0)	6(5.7)	12(5.3)	6(10.9)	8(12.5)
가치관 및 사고행위	3(2.5)	4(2.0)	3(3.9)	2(1.2)	3(2.9)	3(1.3)	0(0.0)	1(1.6)
유능성 및 경제성	4(3.4)	11(5.6)	2(2.6)	6(3.7)	6(5.7)	9(4.0)	5(9.1)	1(1.6)
생활습관	3(2.5)	5(2.6)	1(1.3)	2(1.2)	4(3.8)	5(2.2)	0(0.0)	0(0.0)
	6(5.0)	14(7.1)	7(9.2)	15(9.1)	7(6.7)	15(6.7)	3(5.5)	5(7.8)
2. 관계적 측면								
정서적 안정 및 신뢰	33(27.7)	50(25.5)	24(31.6)	36(22.0)	33(33.3)	54(24.0)	20(36.4)	18(28.1)
공통의 생활환경	11(9.2)	23(11.7)	6(7.9)	14(8.5)	12(11.4)	19(8.4)	6(10.9)	6(9.4)
이해 및 존중	12(10.1)	11(5.6)	8(10.5)	12(7.3)	9(8.6)	16(7.1)	3(5.5)	7(10.9)
의사소통	6(5.0)	10(5.1)	5(6.6)	8(4.9)	6(5.7)	12(5.3)	5(9.1)	4(6.3)
	4(3.4)	6(3.1)	5(6.6)	2(1.2)	9(7.6)	7(3.1)	6(10.9)	1(1.6)
3. 가족적 측면								
가족에 헌신 및 집안일	13(10.9)	19(9.7)	11(14.5)	43(27.4)	14(13.3)	50(22.2)	4(7.3)	10(15.6)
상속태도 및 자녀관계	4(3.4)	5(2.6)	4(5.3)	18(11.0)	4(3.8)	18(8.0)	2(3.6)	6(9.4)
친인척 관계	5(4.2)	4(2.0)	4(5.3)	12(7.3)	6(5.7)	13(5.8)	1(1.8)	3(4.7)
	4(3.4)	10(5.1)	3(3.9)	15(9.1)	4(3.8)	19(8.4)	1(1.8)	1(1.6)
4. 사회적 측면								
경제력	30(25.2)	53(30.1)	14(18.4)	33(20.1)	17(16.2)	47(20.9)	6(10.9)	7(10.9)
직업 및 사회적 지위	5(7.6)	19(9.7)	9(11.8)	22(13.4)	10(9.5)	27(12.0)	4(7.3)	5(7.8)
집안배경	11(9.2)	22(11.2)	3(3.9)	4(2.4)	4(3.8)	9(4.0)	0(0.0)	1(1.6)
학력	4(3.4)	7(3.6)	2(2.6)	4(2.4)	3(2.9)	6(2.7)	0(0.0)	0(0.0)
종교	3(2.5)	8(4.1)	0(0.0)	2(1.2)	0(0.0)	3(1.3)	1(1.8)	0(0.0)
	3(2.5)	3(1.5)	0(0.0)	1(0.6)	0(0.0)	2(0.9)	1(1.8)	1(1.6)
5. 기타								
	5(4.2)	4(2.0)	4(5.3)	3(1.8)	3(2.9)	6(2.7)	2(3.6)	4(6.3)
전계	119(100.0)	198(100.0)	76(100.0)	164(100.0)	103(100.0)	223(100.0)	55(100.0)	64(100.0)

용에서 다른 항목들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② 신체적 건강의 항목은 배우자의 건강 중에서 정신건강을 제외한 신체적 건강의 특성만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란 성격의 측면에서 포괄하여 다루었기 때문이다. ③ 외모 및 신체적 매력의 항목은 배우자의 이미지나 목소리, 성적 매력, 분위기 등과 관련된 응답이 다소 있었다. ④ 가치관 및 사고방식의 항목은 배우자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기혼여성들 중에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권위적 사고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있었고, 기혼남성들 중에서 배우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 경제적 관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있었다. ⑤ 유능성 및 장래성의 항목은 배우자의 개인적 능력으로 주로 이를 통해 미래에 기대되어지는 배우자의 장점과 관련이 있다. ⑥ 생활습관의 항목은 배우자와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들로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생활습관들이 있었다.

관계적 측면

정서적 안정 및 신뢰, 공통의 생활환경, 이해 및 존중, 의사소통의 하위항목들을 관계적 측면의 상위항목들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하위항목들은 응답자 자신과 배우자의 양자적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배우자의 특성이다. 즉, 응답자가 배우자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 항목들을 관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하위항목으로, ① 정서적 안정 및 신뢰 항목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감, 배려, 따뜻함, 애정, 육체적 친밀감 및 성생활에 대한 응답내용이 있었다. ② 공통의 생활환경 항목은

배우자와의 조건이 처음부터 동질적인 조건을 기대하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비슷한 연령대와 세대의식, 배우자의 집안 및 사회적 배경, 학벌, 종교 등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 옆에 있어주는 것에서부터, 취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일에 종사함으로써 현재의 생활경험의 공통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측면도 함께 나타났다. ③ 이해 및 존중의 항목은 배우자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의 독립성의 인정과 자신의 독특성을 수용해 줄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안정 및 신뢰와 공통의 생활환경 항목에서의 상호의존성이나 동질성에 대한 동기와 구별되는 것이다. ④ 의사소통 항목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의 정도와 의사소통에 내용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가족적 측면

가사 및 집안일, 양육태도 및 자녀관계, 친인척 관계의 항목들을 가족적 측면의 상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 관계는 양자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배우자의 특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배우자의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항목으로, ① 가사 및 집안일의 항목은 가사에 관여하는 정도, 가족에 대한 시간적 할애, 집안의 행사와 같은 대소사에 대한 관여정도에 대한 응답내용이 있었다. ② 양육태도 및 자녀관계의 항목은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과 교육 방식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내는 응답내용이 있었다. ③

친인척 관계 항목은 배우자의 원가족 및 응답자의 원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 이에 대한 불만의 응답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항목은 고부갈등이나 시댁갈등, 오서갈등에 대한 응답내용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

경제력,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집안배경, 학력, 종교의 측면들을 사회적 측면의 상위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은 배우자의 사회적 위치나 신분, 지위, 계층을 나타내는 기준과 관련이 깊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배우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배우자와의 양자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특성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제시된 제 3자적인 기준에 의한 외적인 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는 배우자의 특성들로 구성되었다.

하위항목으로, ① 경제력 항목은 연간 수입이나, 월급, 재산 및 유산 상속과 같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응답을 경제력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분리하여, 개인의 유능성이나 경제적 자립도를 의미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 그리고 사회적 평가나 지위, 신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② 직업 및 사회적 지위 항목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외적 평가의 의미를 가질 때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③ 집안배경은 배우자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

류하였다. ④ 학력은 배우자에게 기대하거나 만족하는 최소한의 학력수준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외적 평가의 의미를 가질 때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⑤ 종교는 배우자의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 및 기피에 대한 응답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응답자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관련 없는 응답을 한 경우와 애매모호하게 응답하여 특정 항목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빈도분석

표 2와 3에서 보듯이, 세대별 및 남녀별 응답비율의 차이가 상위범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상위범주와 세대, 및 성별에서 나타나는 응답빈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로그분석을 실시하였고(박광배 1992) 각 범주별로 성차 및 세대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¹⁾

먼저, 선형로그분석은 변인이 세 개 이상인 상황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박광배, 1992), 본 연구에서는 반응빈도에서 범주, 세대와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배우자의 선택 및 만족에서 범주와

1) 하위범주를 분석단위로 해서 성별 및 세대별 차이를 검증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위범주에서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아 χ^2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했다. 그래서 상위범주별로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반응빈도에서 범주, 세대 및 성별에 따른 선형로그분석표

	선택 및 만족			기피 및 불만		
	df	χ^2	p	df	χ^2	p
범주*세대	9	27.27**	.001	9	52.37***	.000
범주*성별	3	5.87	.118	3	21.95***	.000
세대*성별	3	7.71	.052	3	10.37*	.016
범주	3	211.70***	.000	3	113.29***	.000
세대	3	148.91***	.000	3	68.83***	.000
성별	1	.73	.392	1	6.84**	.009

* $p < .05$, ** $p < .01$, *** $p < .001$

세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선택 및 만족의 응답빈도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는 모든 범주에 걸쳐 동일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기피 및 불만에서의 반응빈도에서는 범주와 세대, 범주와 성별 및 세대와 성별의 상호작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세대마다 범주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르고, 각 성별마다 범주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르며, 각 세대마다 성별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²⁾

선형로그분석에서 얻은 결과로는 특정 범주에서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4개의 상위범주 각각에 대하여 세대 및 성별의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³⁾을 실시하였다. 그

2) 그러나 세대와 성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단지 표본에서의 차이일 뿐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으며, 주효과 역시 표본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다(박광배, 1992).

결과, 위의 선형로그분석에서 얻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세대별 차이와 특정 세대에서의 성별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선택 및 만족에 대한 반응비율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개인적 측면의 범주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chi^2_{(3, 265)} = 16.83, p < .001$, 여자: $\chi^2_{(3, 264)} = 24.83, p < .001$). 남녀 모두 미혼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높고, 남자는 결혼초기에 그리고 여자는 노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남녀 모두 미혼기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반면에 남자는 결

3) 교차분석은 각 범주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응답자 수의 반응비율(특정 범주의 반응 빈도 / 응답자 수 x 100)을 비교하였다. 특정 범주의 반응빈도에 대한 전체 반응빈도의 비율 즉, 전체 반응빈도에 대한 상대적 빈도로 분석할 경우 각 범주간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통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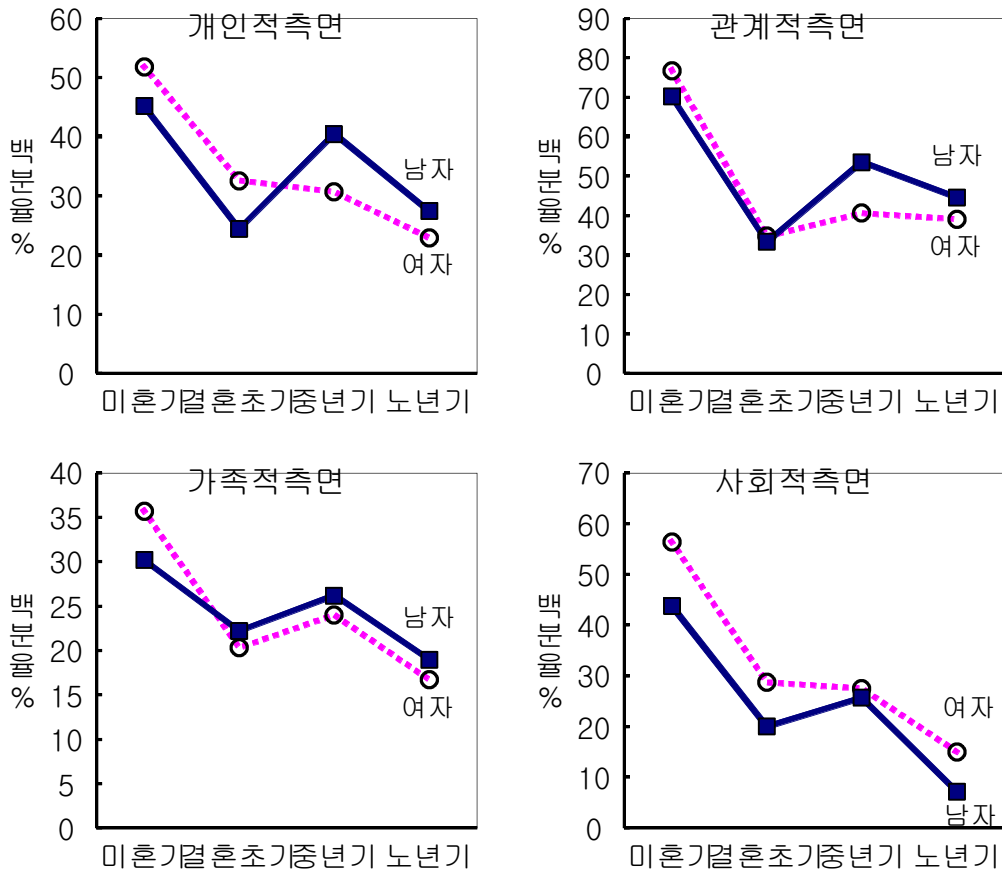


그림 1. 선택/만족 요인들의 각 상위범주에 대한 세대별 및 성별 반응비율
(백분율 = 응답빈도 / (하위범주의 수 * 응답자수) * 100)⁴⁾

혼초기에 그리고 여자는 노년기에 가장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chi^2_{(3, 259)} = 18.34, p < .001$, 여자: $\chi^2_{(3, 244)} = 30.21, p < .001$). 남녀 모두 미혼기에 반응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초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하

여 남녀 모두 미혼기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반면에 결혼초기에 가장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적 측면에서는 여자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서(여자: $\chi^2_{(3, 92)} = 8.06, p < .01$), 미혼기에 반응비율이 가장 높고 노년기에 가장 낮았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의 가족적 측면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에서만 미혼기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노년기에 가장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세대별

4) 예를 들어 선택만족에서 미혼기 남자의 개인적 측면의 경우, $45.23 = 57 / (6 * 21) * 100$ 으로 계산됨.

로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chi^2_{(3, 154)} =$, $p < .001$, 여자: $\chi^2_{(3, 174)} = 33.37$, $p < .001$). 즉, 미혼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높고 노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년기의 세대에서 남녀차가 나타났는데($\chi^2_{(1, 35)} = 4.44$, $p < .05$), 여자가 남자보다 반응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미혼기에 가장 많이 기대하는 반면에 노년기로 갈수록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노년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사회적 측면을 더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피와 불만에 대한 반응비율이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적 측면의 범주에서 남자의 경우 세대별로 차이가 있어(남자: $\chi^2_{(3, 241)} = 11.29$, $p < .05$), 중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높고 결혼초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에만 중년기에 가장 불만족 하고 결혼초기에 가장 덜 불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남자가 세대별로 차이가 유의미해서(남자: $\chi^2_{(3, 227)} = 13.07$,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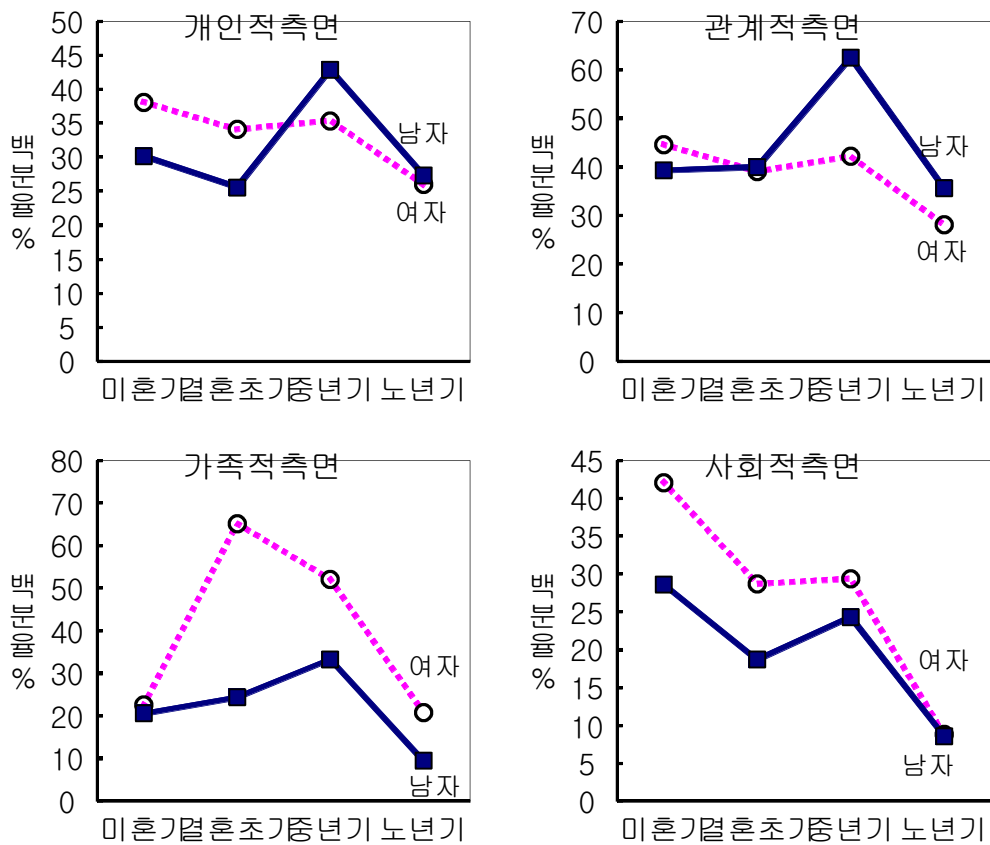


그림 2. 기피/불만 요인들의 각 상위범주에 대한 세대별 및 성별 응답비율
(백분율 = 응답빈도 / (하위범주의 수 * 응답자수) * 100)

< .01), 중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높고 노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에 남녀차가 유의미해서($\chi^2_{(1, 134)} = 5.10, p < .05$),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반응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에만 중년기에 가장 불만족 하고 결혼초기에 가장 덜 불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년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불만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가족적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chi^2_{(3, 84)} = 12.73, p < .01$, 여자: $\chi^2_{(3, 155)} = 34.67, p < .001$). 즉, 남자는 중년기에 그리고 여자는 결혼초기에 반응비율이 가장 높고 남녀 모두 노년기에 반응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에 따른 남녀차가 나타나서, 결혼초기($\chi^2_{(1, 86)} = 17.80, p < .001$)와 중년기($\chi^2_{(1, 82)} = 3.92, p < .05$), 노년기($\chi^2_{(1, 29)} = 4.03, p < .05$)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반응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의 가족적인 측면에 대하여 남녀가 각각 중년기와 결혼초기에 가장 불만족을 느끼지만 노년기로 갈수록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기혼자의 모든 세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가족적인 측면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남자: $\chi^2_{(3, 129)} = 17.84, p < .001$, 여자: $\chi^2_{(3, 174)} = 33.37, p < .001$), 미혼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높고 노년기에 가장 반응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기에서 남녀차가 나타났는데($\chi^2_{(1, 113)} = 4.16, p < .05$), 여자가 남자보다 기피반응을 더 많이 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배우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남녀 모두 미

혼기에 가장 배우자의 부정적 측면을 기피하지만, 노년기로 갈수록 배우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불만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혼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기피하는 것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세대별 발달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혼기, 결혼초기, 중년기 및 노년기에 해당하는 총 163명(남: 64, 여: 99)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4개의 상위범주 즉, 개인적, 관계적, 가족적 및 사회적 측면과 18개의 하위범주 차원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이렇게 분석된 내용의 각 범주에서 나타난 남녀차이와 세대차를 양적 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내용분석을 통해 전 세대에서 4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범주를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적 측면의 상위범주에는 배우자의 성격, 신체적 건강,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가치관 및 사고방식, 유능성 및 장래성, 생활습관의 항목들이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둘째, 관계적 측면의 상위범주에서는 정서적 안정 및 신뢰, 공통의 생활환경, 이해 및 존중, 의사소통의 항목들이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셋째, 가족적 측면의 상위범주에서는 가족에 헌신 및 집안일, 양육태도 및 자녀관계, 친인척 관계의 항목들로 분류되었다. 넷째, 사회적 측면의 상위범주에서는 경제력, 학력, 집안배경, 종교, 직업 및 사회적 지위의 항목들이 분류되었다.

빈도분석에서 미혼자의 선택/만족 혹은 기혼자의 만족/불만에서 남녀차이와 세대차이가 각 상위범주에서 나타났다. 먼저 선택/만족과 관련해서 볼 때, 배우자의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가족적 측면, 사회적 측면 모두에 대해서 남녀 모두 미혼기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반면 결혼초기에 만족감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미혼 남녀가 결혼 상대자에 대해 결혼 후의 현실적 측면보다 다소 이상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실제 경험 속에서 쉽게 관찰되는 바로, 결혼 후에는 결혼 전의 배우자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평가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혼기에는 배우자에 대한 관계 만족의 욕구가 가장 높은 시기이지만, 결혼 직후에는 미혼기와 같은 정도로 관계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다. 이것은 결혼 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만족감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 일수도 있고, 결혼생활의 현실 속에서 다른 문제에 봉착하여 상대적으로 친밀성의 과업이 적게 평가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노년기에서 남녀의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 여성의 응답내용 중에서 남편이 정년 후에도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당연하게도 배우자의 선택과 만족에서 기대와 바람이란 늘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의 만족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생애적 사건으로서 결혼을 평가할 때 현실의 측면을 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라는 측면에 못지않게, 앞으로 닥칠 문제들과 관련해서 배우

자의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지한다. 또한 노년기 여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볼 때, 배우자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그들의 삶의 복지와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그들의 복지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배우자 문제와 분리되어 살펴볼 수 없음을 의미함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피 및 불만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서 모두 중년기에 불만이 가장 높았다. 이시기는 중년기 위기를 겪는 시기로서(Irwin & Simons, 1994), 배우자 문제에서도 중년기의 갈등의 시기와 연관하여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응답내용에서는 배우자의 신체적 건강, 외모 및 신체적 매력, 가치관 및 사고방식, 생활습관, 의사소통 등의 전반에서 배우자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세대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중년기와 결혼초기에 가장 불만족을 느끼지만 노년기로 갈수록 불만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기의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을 더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적인 측면의 과업의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Erikson이 제시한 중년기의 생산성의 과업의 측면과 상응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범주보다 남녀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혼자 세대 전부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여러 선행연

구에서(박은옥, 2001) 밝힌 바와 같이 기혼여성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나, 자녀관계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적 내용들 중에서도 이러한 응답들이 다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미혼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년기로 갈수록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의 불만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 측면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Erikson이 제시한 노년기의 통합의 과업의 측면과 상응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노년기 기혼자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위항목에서 불만족이 낮게 나타난 점은 노년기 이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자세를 통하여 통합성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미혼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에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를 구체적인 질적 응답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및 직업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로, 중년기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서의 높은 불만을 볼 때, 이들의 배우자들이 개인적 측면에서의 불만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관계적 측면에서는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적인 측면에서 남녀 모두 기혼자의 불만이 높고 결혼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중요도가 크다는 점(표 3)은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인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결혼생활에서 가족에 대한 비중이 서구

보다 크고 특히 불만의 측면이 두드러진다면, 서구의 결혼생활만족에 대한 척도와 개념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혼자 여성이 가족적 측면에서 더욱 높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혼자 남성이 보다 가족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녀모두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결혼생활에서 사회적 기준에 의한 평가보다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평가가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배우자 선택 및 결혼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부의 정책 및 교육 단체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혼자와 기혼자의 기대와 만족, 그리고 기피와 불만족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미혼자들은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느끼는 만족감보다 다소 높은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점들에 대해서 기혼자보다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기혼자가 지각하는 중요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혼자의 경우에는 결혼 후에 배우자가 만족시켜줄 수 있는 현실적 기대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고, 초기 기혼자의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결혼 전의 이상과 결혼 후의 현실적 평가의 차이에 의한 갈등과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미혼기에는 가족에 대한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배우자에 대한 외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덜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충분한 연구대상자가 확보되지 못했고 서울과 충청북도에서만 표집이 이루어져 다양한 지역별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노년기 기혼자의 경우 다른 응답들보다 응답빈도가 적게 나왔는데, 인터뷰 시에 노인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다른 세대보다 빈약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 많은 노년기 응답들로부터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를 선정하여 광범위한 차원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세대와 성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에 분석수준을 맞추어서 질적인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세대와 성별마다 의미하는 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응답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응답자의 의미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정의 간에 완전하고 뚜렷하게 분류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즉 언어의 다의성과 중의성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말한 구체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의미 간에는 다소 불일치의 상태가

존재한다.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기보다 언어와 실제, 그리고 추상적 의미간의 균열에서 비롯되는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 간의 적절한 논의를 통하여 추상적 의미를 정의하고 일치된 방향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혼자의 연구의 경우, 부부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응답 각각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부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혼생활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지각과 지각의 차이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배우자 연구가 시도하지 못했던 발달적 양상을 비교적 구체적인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배우자 관계의 시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편적인 현상을 밝혔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미혼자와 기혼자의 연속적인 발달양상 과정 중에서 배우자 문제를 비교할 수 있었다. 즉 현재의 한국인의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배우자 문제를 질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용분석을 통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서구의 척도를 들여와 양적인 비교를 한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발달 주기에 따른 배우자 문제를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발달양상과 관련된 배우자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호철 (1984). 대학생들의 결혼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혜선, 김명자 (1992).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13-131.
- 김혜선, 성미애 (1993). 배우자 선택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2), 69-80.
- 김혜선, 한희선 (1995).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44-155.
- 박광배 (1992). 빈도분석. 도서출판 성원사.
- 박은옥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508-517.
- 서병숙, 정혜은 (1992). 배우자 선택과 결혼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 생활과학 연구*, 12, 209-227.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 이선정, 신호식 (2000).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과학학회지*, 3(2), 13-26.
- 이여형 (1996).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 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41-64.
- 장윤옥 (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 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현숙 (1996).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1-14.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정현숙, 유계숙, 최연실 (2003). 결혼학.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2.
- 홍달아기 (2003). 대학생의 배우자 선택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8(1), 75-97.
- 홍향숙 (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 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vol. 9). New York: The Froe Press.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25-139.
- Fincham, F., Beach, S., & Kemp-Fincham, S. (1997). *Marital quality: A new theoretical*

- perspective*. In R. Sternberg & M. Hojjat(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NY: Guilford Press.
- Imamoglu, O., & Yesim, Y. (1997). Dimensions of marital relationships as perceives by Turkish husbands and wives.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3(2), 211-232.
- Irwin, D. B., & Simons, J. A. (1994).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Wisconsin: Brown & Benchmark.
- Levinson, D. J. (1996).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Knopf.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Mattessich, P. & Hill, R. (1897). *Life cycle and family development*. In New York: Plenum Press.
- Mayring, P. (2000).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64-87.
- Orden, S. R., & Bradburn, N. M. (1968). Dimensions of marriage happines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3(May), 715-731.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37-546.
- Sabatelli, R., & Shehan, C.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G. Boss et a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 385-411.
- Shek, D. (1995). The Chinese ver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Does languag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6), 802-811.
- Wadsby, M. (1998). Evaluation of the Swedish version of the ENRICH marital Inventory.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2(5), 379-388.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2nd ed.)*. Newbury Park, CA: Sage.
- Wooldredge, J., & Scheon, R. (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1-1971 and 1979-1981.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4), 465-481.

1 차원고접수 : 2009. 8. 10.
심사통과접수 : 2009. 8. 28.
최종원고접수 : 2009. 9. 27.

Study of Mate selection and satisfaction

DongSu Kim Myhyeong Park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singles' mate selection and married persons' marital satisfaction through four generations of different aged (single, newly married, middle aged, and elderly group). For this purpose, an open-end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a total of 163 persons belonging to four different age groups in Seoul and Chungcheong-Do. Forty-nine singles of them described mate selection and avoidance factors and 114 married persons described mate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s. Content analyses led to four categories (personal, relational, familial, and social) and 18 subcategories. Also, interactions between category, generation and gender were analysed through log-linear analysis. For the frequency of mate selection/satisfaction were interactions significant between category and generation and between category and gender. Also, for the frequency of mate avoidance/dissatisfaction were all two-way interactions significant among category, generation and gender. Also,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and between gender for each category were analysed through cross-tabs. Generation differences were found for all categories, whereas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only for familial and social categorie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specifically in terms of developmental contexts.

Key words : mate selection, marital satisfaction, content analysis, Adult development, generation differences, gender differences.

부 록. 각 범주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술 예시

범주	선택/언주	기피/불만
1. 개인적 측면		
성격	착한, 유순한, 원만한, 모나기 없는, 융통성 있는, 남성적인, 활력 있는, 정력적인, 별이 없는	우울함, 고집질, 이기적인, 공격적인, 과격함, 인내함, 잔병이 많은, 피곤해 하는, 기운 없는, 무기력한
신체적 건강	연예인을 많은, 목소리가 좋은, 예쁜, 잘 생긴, 들떠한	성격패력이 없는, 힘약함, 가꾸지 않는, 유행에 뒤쳐진.
외모 및 신체적 매력	특정 문제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는, 정치적 입장의 일치.	남성우월적인, 정치적 입장의 불일치, 유연하지 못한 사고.
가치관 및 사고방식	지적능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재주가 있는, 탁월한 능력.	무능력함, 재주가 없음, 지적능력이 없음.
유능성 및 장애성	규칙적 생활, 순종순란, 착수관, 정결한 습관	불규칙한 생활, 술주, 음면, 폭력, 남매, 사치
생활습관		
2. 관계적 측면		
정서적 안정 및 신뢰	사랑하는, 신뢰하는, 따뜻한, 해려하는, 공감하는, 아껴주는.	애정 없는, 무관심의, 불신하는, 차가운, 냉담함, 배탈리는
공통의 생활환경	함께하는 시간, 공통의 취업, 공통의 생활패턴.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떨어져 생활함, 다른 생활패턴.
이해 및 존중	존중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속박하지 않는.	자유를 구속하는, 무시하는, 개인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대화가 잘되는, 대화의 질과 양이 충분한.	대화가 없는, 공격적인 대화, 불명하고 험담는 대화.
3. 가족적 측면		
가족에 원신 및 집안일	집안일에 신경 씀, 집안에 관련된 대소사에 책임을 지는.	집안일에 소홀함, 무관심함, 책임감 없는.
상속태도 및 자녀관계	자녀에 대한 시간과 관심, 자원을 할애하는, 상속과 교육하는	자녀에게 무관심, 자녀와 사이가 안 좋은, 자녀에게 무책임한
친인척 관계	자신의 부모나 형제에게 배려하는, 그들과 사이가 좋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들에게 무관심, 사이가 안 좋은.
4. 사회적 측면		
경제력	연봉, 월급, 수입, 상속된 재산, 부동산등이 기대이상인.	연봉, 월급, 수입, 상속된 재산, 부동산등이 기대이하인.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선호하는 직업, 높은 사회적 계층 및 신분, 안정된 직장.	불안정한 직장, 낮은 사회적 계층 및 신분, 비선호 직업.
집안배경	집안이 내력이 있는, 부모의 재산 및 지위가 기대이상인.	원부모의,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가 기대이하인.
학력	특정 학력 이상인, 학벌이 좋은, 유학을 다녀온.	특정 학력 이하인, 학벌이 기대이하인.
종교	특정 종교를 선호하는.	특정 종교를 기피하는.
5. 기타		